

이렇게
생각한다

오성상

신구대학 그래픽아츠미디어과 교수

국내외의 환경 규제와 인쇄정보산업의 대응 방안



환경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범 기업적 노력이 1974년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전세계 산업계를 위한 환경지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1989년 '환경감사 Position Paper'를 작성하여 기업 내부의 환경관리 기법으로 정하고 개념과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990년 10월에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현장(일명 ICC 현장)'이 발표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환경에 대한 관리·감사를 진행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1991년 7월에는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계 회의(BCSD :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대해 환경관리 규격화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ISO는 국제전기 표준회의(IEC)와 공동으로 '환경에 관한 전략 자문 그룹(SAGE : 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을 설치하고 1992년에 ISO 내부에 전문위원회(TC 207)를 두어 오늘날의 환경 경영규격인 ISO 14000 시리즈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환경보전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영국에서는 영국규격협회를 중심으로 환경관리시스템 규격인 BS 7750 완성안을 1992년 3월에 발표하였는데, 이 영국 규격을 기초로 EMAS가 재검토되어 1993년에 EU의 환경규격안으로 발간되었다.

1992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 Summit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1995년에 폐기물의 국제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1996년에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규제하는 런던 협약,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되는 등 국제 환경경영 규격인 ISO 14000 시리즈 제정의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ISO 14001(환경경영체제인증)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1992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 환경 경영 기술위원회(TC 207)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보완하여 1996년 9월말 국제 환경경영체제 규격인 ISO 14001을 제정하여, 동년 10월에는 환경감사 규격(ISO 14010, 14011, 14012)이 제정되어 공표되었다. ISO 14000 시리즈는 조직을 평가하는 영역과 제품 및 공정을 평가·분석하는 영역으로 대별된다. 환경경영체제, 환경심사, 그리고 환경성과평가 등은 조직의 환경경영에 대한 평가를 위한 표준이며, 환경 레이블링, 전과정 평가와 제품규격에 관한 환경측면 등은 생산제품과 생산 공정의 환경성에 관한 평가표준이라 할 수 있다.

환경경영의 기본 모델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제창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적 방법론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경영이 기업경영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환경관리 방법이나 사후처리 위주의 기술개발 및 투자활동이 더 이상 충분한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의 반영이며,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기업경영 전략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즉, 일부 환경담당자들에 의해 사후처리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환경관리 방식에서 탈피 하여 전직원의 참여를 통해 전사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경영의 실천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ISO 14001에서 규정한 환경경영체제의 구조는 일반적인 경영체제가 갖는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즉, 환경경영체제는 현황 분석, 개선계획 수립, 계획 실행, 실행결과에 대한 점검과 시정조치 등 일반적으로 경영체제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ISO 14001의 주요 국가 취득 추세 (참조 : www.iso.org)

ISO 14001 이외에도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 각 국의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VOC 규제가 이루어져 알콜리스 습수 첨가제, 저 VOC 잉크 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대두협회(ASA)는 잉크 중에 사용하는 대두유의 최저 필요량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필요량 이상의 잉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소이 씰(Soy Seal)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한 인쇄물에 대해서도 소이 씰 표시를 허가하여 소비자가 환경적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에서는 동경도 인쇄협동조합 산하 환경보호인쇄추진위원회에서 제판에서 인쇄까지의 공정에 대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크리오네 마크 제도를 발표하였다. Non-VOC(대기 오염), Non-Drain(폐수 방출)을 테마로 크리오네 마크를 적용하여 환경우량사업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제 1단계로 오프셋 인쇄 서비스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쇄물의 디자인에서부터 후가공까지의 모든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위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면 그린프린팅 마크(GP 마크)가 부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우량 사업자로써 사회적 평가 향상, 거래 기업 간의 환경 활동을 통한 지위 향상, 인정공장에 대한 동연합회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 인정 인쇄공장, 인쇄제품 등에 크린 프린팅 마크 부착 등의 특전을 얻음으로써 환경적인 면에서 공익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친환경제품 구매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IGPN(국제녹색구매네트워크단체) 설립을 주도하여 1996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일본의 GPN(녹색 구매네트워크) 회원을 비롯, 한국을 포함한 구미 아시아 6개국 단체 등이 참가한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정보용지의 구입시 재활용 가능제품 등 용도에 따라 환경에 부하가 적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의 인쇄정보산업에서는 아직 환경적 고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다른 분야에 부분적으로 묶여서 환경적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환경마크 제도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1175개 업체 5027개 제품(2007.10.31 기준)이 인증받았으며, 그 중 인쇄 분야에서는 인쇄 용지 7개 업체 43제품, 사무용지 10개 업체 2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GR마크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종이를 중심으로 하여 17개 업체 26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국내의 경우 전체적인 제조업이 환경적인 부분에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이러한 고려는 수출 중심의 기업이 중국, 미국, EU(유럽연합)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하여 취득을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하지만 2004년 기준으로 일본의 13%, 중국의 30%, 미국에 7%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미약하다. 더욱이 인쇄정보산업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의 고려는 미약하기 만하다.

2003년 기준으로 전자인쇄업체를 제외한 순수 인쇄업체의 취득은 4건에 불과하였으나 다행히 수출업체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고무적인 부분이다. 앞으로 선진국 외에 개발도상국 등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인쇄정보산업에서도 환경적 규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

